



보도시점: 2024. 11. 4.(월) 15:00 이후(11. 5.(화) 조간)

배포: 2024. 11. 4.(월)

## “탄녹위·국토부·환경부, 탄소중립도시를 통해 기후위기 해법을 찾다!”

- 탄녹위·국토부·환경부, 11월 4일 전경련회관에서 「탄소중립도시 콘퍼런스」 개최
-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에 필요한 당면 과제에 대한 열띤 토론 열려

□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(공동위원장 : 한덕수 국무총리, 한화진 前 환경부장관, 이하 ‘탄녹위’)와 국토교통부(장관 : 박상우, 이하 ‘국토부’), 환경부(장관 : 김완섭)는 2024년 11월 4일(월), 전경련 회관 에메랄드홀에서 「탄소중립도시 콘퍼런스」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.

\* (탄소중립도시)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 (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9조제1항)

○ 도시·환경 관련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, 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콘퍼런스는 도시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,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적인 도시 설계 방향을 구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, “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을 위한 당면과제 및 추진방향”을 주제로 진행되었다.

□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이 논의되었다. △종합적·거시적 도시계획 접근 방법론, △도시 개발 단계별 세부 추진전략, △일본 등 해외의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례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.

○ 먼저 건축공간연구원 이은석 탄소중립센터장은 ‘기후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도시 계획 방안’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, 탄소중립도시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주제별 역할과 구체적인 계획 방안을 제안했다.

- 이어진 서울시립대학교 이승일 도시공학과 교수의 ‘탄소중립도시 전환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’ 발표에서는 도시 개발·정비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단기적 전략 및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도시를 탄소중립적 공간구조로 개편할 수 있는 장기적 전략을 제시했다. 이 교수는 이러한 장·단기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여건에 맞는 세부 전략을 수시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
- 또한 그린디지털연구소 이봉석 수석연구원은 ‘일본의 탄소중립도시 추진 동향 및 사례 소개’를 주제로 일본에서 실행 중인 도시 및 지역 단위의 도시 계획 제도와 이행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도시 구성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했다. 이 연구원은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지자체·업계·학계의 긴밀한 협력, 실현 가능한 정책의 기획과 이행,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.
- 이어진 정책 토론에서는 대한국토도시계획 최봉문 학회장(목원대학교 교수)의 사회로 ▲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장, ▲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, ▲ 건설기술연구원 정승현 연구위원, ▲ 한국환경연구원 박창석 선임연구원, ▲ 중부대학교 최정석 교수, ▲ 어반바이오공간연구소 김정곤 소장이 참여,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에 필요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과학적인 정책 방안을 교환하였다.
- 또한, 탄소중립을 온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시 단위의 저탄소 전환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관점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.
- 이번 콘퍼런스는 향후 도시 단위의 탄소 저감 방안 및 에너지, 건물, 교통 등 분야별 세부 전략 마련에 필요한 과학적 기반과 정책적 영감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.
- 한화진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콘퍼런스 개최사를 통해 “도시는 전 세계 온실가스의 70% 이상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,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도시의 역할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고 하면서,

- “이를 위해 도시계획과 연계한 저탄소화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, 건물, 교통, 폐기물 등 분야별 탄소 감축 방안을 도시 안에 유기적으로 통합적용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정교한 수단과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. 또한 탄소중립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치밀한 접근이 필요하다. 우리나라의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전환하여 기후위기를 완화할 수 있도록 탄녹위의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”고 강조하였다.
-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“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 단위부터 한 단계씩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, 국토부에서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수소도시 사업도 추진하고 있어 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후에도 도시의 탄소중립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”고 언급했다.
- 환경부 서영태 녹색전환정책관은 “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도시의 탄소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며, 이를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도시를 통해 선도모델을 발굴하고 그 우수한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- 콘퍼런스 발표 자료 및 토론 영상 등 관련 내용은 탄녹위 누리집 ([www.2050cnc.go.kr](http://www.2050cnc.go.kr))에 게재할 예정이다.

담당 <총괄>	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감축관리과	책임자	과 장	박정준	(044-200-1948)
		담당자	사무관	김용래	(044-200-1949)
<공동>	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	책임자	과 장	최병길	(044-201-3730)
		담당자	사무관	현혜지	(044-201-3735)
<공동>	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	책임자	과 장	마재정	(044-201-6678)
		담당자	사무관	오수미	(044-201-6682)

□ 개최 계획

- (時/所) '24. 11. 4(월) 14시~17시 / 전경련회관 에메랄드홀
- (주최)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, 국토교통부, 환경부
- (주제)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을 위한 당면과제 및 추진방향
  - ※ 발제<sup>1</sup>기후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도시 계획방안, 발제<sup>2</sup>탄소중립도시 전환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, 발제<sup>3</sup>일본의 탄소중립도시 정책사례
- (참석자) 탄녹위, 국토부, 환경부, 연구기관, 전문가 등 100여 명

<세부진행계획>

시 간	주 요 내 용	비 고
14:00~14:20	(2') ○ 내빈소개 및 개회선언(사회자)	
	(2') ○ 국민의례	
	(6') ○ 개회사	탄녹위 공동위원장
	(5') ○ 축사	국토부 국토도시실장
	(5') ○ 축사	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
14:20~14:25	(5') ○ 주요 내빈 기념촬영	주요내빈
14:25~14:50	(25') ○ 발제 ❶ -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도시 계획방안	- 이은석 센터장 (건축공간연구원)
14:50~15:15	(25') ○ 발제 ❷ - 탄소중립도시 전환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	- 이승일 교수 (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)
15:15~15:40	(25') ○ 발제 ❸ - 일본의 탄소중립도시 정책사례 소개	- 이봉석 수석연구원 (그린디지털연구소)
15:40~15:45	(5') ○ 장내 정리	
15:45~16:40	(55') ○ 패널토론 - 좌장 주재 토론 및 질의응답	○ 좌장 : 최봉문 (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) ○ 패널 -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 -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 - 최정석 교수(중부대) - 박창석 연구원(환경연) - 김정곤 소장(어반바이오) - 정승현 연구원(건기연)
16:40~17:00	(20') ○ 청중 토론(질의응답) / 마무리	패널·청중 / 좌장

탄소중립·녹색성장 전문가 컨퍼런스

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을 위한 당면과제 및 추진방향

# 탄소중립도시 컨퍼런스

2024. 11. 4(월) 14:00~17:00  
전경련회관 에메랄드홀(3F)

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YouTube 실시간 스트리밍



▲ 온라인 참가신청



대한민국 2050  
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



국토교통부



환경부